

[기획] >> 3면
우리학교 생협 위기

[사회] >> 8면
낙태죄 개정안 논란

[학술] >> 9면
태국 시위

[인물] >> 12면
지준범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소장



수업 방식 전환, 소통의 '스위치' 를 켜야할 때

지난달 19일, Switch 1 on(스위치 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학교측과 양캠 총학생회 간 갈등이 심화됐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갈등의 돌파구를 모색해봤다.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우리학교, 용인시정연구원과 공동 연구 업무 협약 체결해

지난달 21일, 우리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용인시 관내 7개 대학과 용인시정연구원이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시정발전을 위한 과제 대응 능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개별과제를 연구하고 용인시정연구원과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지역거점대학의 지역 특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맡았다.

협약식은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진행됐으며 백근기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 겸 용인시장(이하 백 시장)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내 7개 대학의 총장이 참여했다. 이날 백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문 역량을 모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정

책을 제안하는 등 학교와 연구원 사이 협력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향후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 연구소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역량 확대 및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용인시정연구원은 △경기 동남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상생 협력 방안 제시△용인시민을 위한 시정발전 과제 연구△용인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연구수행을 위해 개원했다. 특히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기본 전략과 이행계획에 대해 시민참여형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202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국제교류 부문 대상 수상해

지난달 22일, 우리학교가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한 '202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에서 국제교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창간 32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한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은 우수대학 시상식이다. 이번 해엔 △교육 특성화△미래 교육 혁신△혁신사업△산학협력 등 10개 분야 심사가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2015년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국제교류 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5년 만에 다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학교는 40개국 대사 추천서를 받아 선발된 학생 140명에게 학생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부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지 않았다. 김인철 우



▲수상 기념 촬영 중인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국제교류 부문 대표 대학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해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국가 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8월, 우리학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교육 독립법인 '빅히트 에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번 해 개관한 송도 국제교육센터에서 해외 교류 기관과 함께 특강 및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세계문화기행과 관련된 △몽골△중앙아시아△터키 문화강좌와 8개 국가별 특수외국어 기초강좌를 개설해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계 단기연수 과정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로 문의 (Tel. 02-2173-3467-8) 또는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중국어 강좌

- 회화, HSK, HSKK, 영화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수강 신청 최소 인원 3명 미달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현금 제도: 외대학생인 경우 수업 95% 출석 시, 수강료의 70% 환급
- 시간표

08:00 ~ 08:50	[회화] 매일
10:00 ~ 12:00	[新 HSK] 화·목요일
10:00 ~ 11:30	[회화] 월·수·금요일
15:00 ~ 16:30	[회화] 월·수·금요일
15:00 ~ 17:00	[新 HSK] 화·목요일
18:00 ~ 19:30	[회화] 월·수·금요일
18:00 ~ 20:00	[新 HSK] 화·목요일
19:00 ~ 19:50	[회화] 매일

2.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기회 제공(추천)

-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추천)
- 가. 모집과정
 1. 연수과정
 - (1) 연수기간: 1학기, 1년 비정규과정
 - (2) 연수분야: 어학연수
 - (3) 연수학교: 중국 내 대학(매년 중국 정부의 공고문에 따름)
 - (4)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
 2. 석사과정
 - (1) 학과: 한어국제교육
 - (2) 기간: 과정 2년 정규과정
 - (3) 학교: 중국 내 대학교
 - (4) 신청자격: 만 45세이하, 학사학위 소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 나. 장학금 지원 내용
 1.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전액지원
 2. 매월 생활보조비 지급
- 다. 신청 및 선발
 1.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부터 모집(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2. 선발 방식: 면접 + 서류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위치: 서울캠퍼스 본관 2층 220호
- 전화번호: 02-2173-3467-8
- 이메일: kongzi@hufs.ac.kr
- 홈페이지: http://gongja.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글로벌캠퍼스, 40주년 기념식 및 정문 개축식 열어

지난달 8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개교 40주년 기념식 및 정문 개축식이 열렸다. 이 행사엔 △교무위원 △교직원△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김종철 우리학교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용에 글캠 교무처장의 연혁 낭독을 시작으로 △이사장 및 김 총장 기념사△40주년 기념 사진전△글캠 40주년 축하 및 홍보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정문 개축 경과보고△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새로 개축된 글캠 정문



▲개축식 참석자 모습

김 총장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그간 글캠이 이뤄온 발전취를 회상하고 지금 까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온 교직원과 학생들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마감재 탈락위험이 있던 정문을 개보수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캠이 더욱 발전하는 대학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40주년 기념 사진·UCC 공모전 시상식도

치러졌다. 이는 글캠 40주년 기념행사 실무준비위원회와 글캠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사진 부문 주제는 △글캠의 아름다운 모습△인물 사진△행복한 학교생활 등이었다. UCC 부문은 자연과 인물 등을 활

용한 △자랑스러운 동문 소개△학과의 역사 및 전통△학교 소개 등이 소재로 주어졌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구상원 안전과 방역을 위해 소규모로 꾸러졌다. 이번 해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준비 예정이던 △기념전시전△특별강연△학술강연회 등은 다음 해로 미뤄졌다. 다음 해, 양 캠퍼스 통합 개교기념식 행사를 글캠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01chae@hufs.ac.kr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2020년 모의유럽연합(이하 모의유럽연합)'이 개최됐다. 모의유럽연합은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우리학교 각 대학의 장모네 EU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007년 시작된 모의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정치 및 입법 절차에 대한 모의 대회다.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유럽연합의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장관급 회의인 유럽연합 이사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김시홍 장모네 EU센터 센터장이 이끌었다. 참석자는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39명이다. 이들은 △시민 단체 △유럽연합 회원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장관 △회장단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유럽연합의 역할과 기여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청중 없이 토론 참여 학생과 심사위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우리학교,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2020 모의유럽연합 개최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우리학교 장모네 EU 센터장 김시홍 교수

됐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전례 없는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한국 학생이 많이 참

김봉철 우리학교 장모네 EU연구소 소장(이하 김 소장)은 이번 모의유럽연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소장은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설이 용과 행정적인 절차 등 일 년가량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의유럽연합을 비롯해 여러 행사를 개최할 때, 학생이 중심이 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등 학생에게 이로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가 학생들에게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가 참가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3명의 최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해 2021년 벨기에 브뤼셀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주 하계 연수를 후원한다. 장모네 EU센터에서 선발한 학생에게 각 학교별 상이 주어진다.

여해 매우 기쁘다”며 “유럽연합에 대해 배우고 모의유럽연합에 참여해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01chae@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활발한 학술 활동 전개해

지난달 17일,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한국기록정보·문화학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활용' 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노명환 한국기록정보·문화학회장 겸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이하 노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데이터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변화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기록 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록은 증거와 기억을 위한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 융합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온라인 개소식이 있었다. 노 소장은 영상을 통해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위치와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 1일엔 ‘데이터 노마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을 위한 다언어·다문화 데이터 아카이브 플랫폼 구상’ 이란 의제로 두 번째 공동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선 박춘원 우리학교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노 소장은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온라인 개소식과 세미나 진행 후 “앞으로 해외의 정보·기록학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해 학술지를 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가장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교육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의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제15회 인문주간 참가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 (이하 인도연구소)과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소가 제15회 인문주간에 참가했다. 이번 해 인문주간은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 함께, 새롭게, 깊게’란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매해 가을 인문주간을 주관하며 인문학 분야의 주요 성과를 일반 시민에게 알린다.

인도연구소는 주한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과 ‘인도! 온라인으로 보고 듣고 느끼다’란 제목으로 간디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시화·에세이 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규표 우리학교 인도 연구소 연구교수의 ‘간디의 마을 공동체 되여야’ 특강과 강명남 한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강사의 ‘스와미

비베까난다 특강’도 성료했다. 국제지역연구소는 ‘연택시대 인문학하기-장벽을 넘어 문화의 만남과 포용’으로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선 한국 문화에 대한 UCC 영상과 온라인 글짓기 공모전을 열고 시상했다. 또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일리아 벨라코프 씨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란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이끌었다.

신민하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됐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 사람들의 고민을 인도 인문주간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의 기자 01hyunik@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09.28(월) ~ 10.08(목)	2020.11.09(월) ~ 11.20(금)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1.25(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0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14(월) ~ 12.1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유학원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특별전형 내내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외국어),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위기의 생협, 우리학교와 상생의 길은?

현재 우리학교 양캠퍼스엔 각각 학생 복지 사업 관련 중개 기구가 존재한다. 이중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번 해 들어 생협은 재정난으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대다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캠퍼스 내 유동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생협은 글캠 재학생의 학내 복지 및 편의를 책임지는 중추 기구이기에 운영 중단 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생협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복지 사업 중개 기구의 현황을 알아보려 한다.

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생협은 △국제사회 교육원 식당 운영 중단△식당 운영 방식 변경 및 운영 시간 조정△우편취급국 운영변경 등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합의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복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어려워진 만큼 생협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학교 학생복지사업 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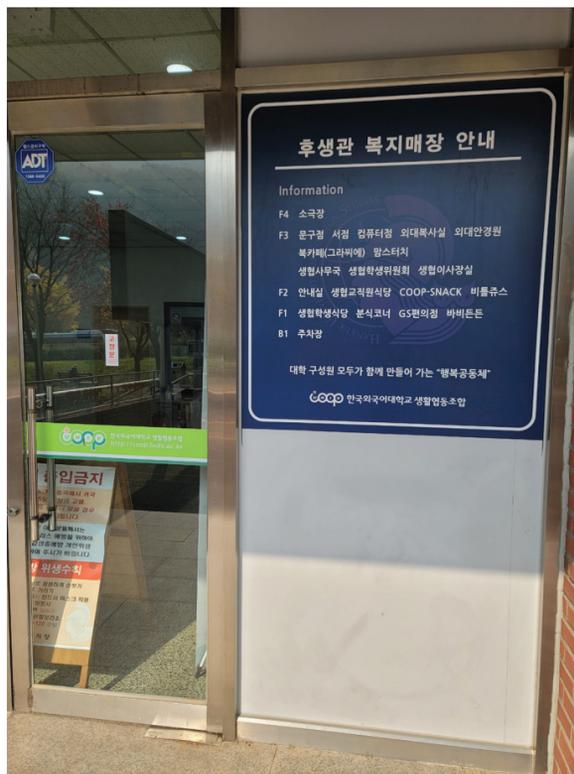
1990년, 우리학교 글캠 생협은 △공동체 정신 증진△복지 증진 도모△학내 구성원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설립됐다. 1994년 9월엔 △교수△직원△학생 3주체로 재창립했다. 이후 2008년 12월 4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독립기구다. 현재 생협은 △입대매장△장학△직영매장사업을 비롯해 기타 조합원 복지 사업 및 우리학교 구성원의 학내 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내 △교직원 및 학생 식당△매점△휴게실 등과 같은 재학생 복지 시설은 모두 생협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생협은 재학생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 기구다.

설캠은 학생 복지 사업을 총괄지원팀 후생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생 파트는 교내 교직원 및 학생 식당과 매점관리 역할뿐만 아니라 △기념품점△서점△사진관 등을 관리해 재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박재현(경영·경영 16) 씨는 “값싼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 학생 복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캠 후생 파트는 학교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있어 연간 운영이 안정적이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생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수월한 상호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

◆생협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28일, 정진성 생협 사무국장(이하 정 국장)에 따르면 설캠 후생파트의 식당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익 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기록했으나, 학교의 즉각적인 지원 정책으로 5억 원 상당의 식당 적립금을 보조받아 재정 적자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글캠 생협의 적자 운영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국제사회 교육원 식당 매출 감소△운영식당 수의 과다로 인한 운영 경비 상승△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식당 관련 인건비 상승 등이다. 생협은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어문학과 식당 전환 및 지속적 구조조정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당과 매점의 휴장이 지속되며 운영수지는 악화됐다. 9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약 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생협은 자체적으로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및 무급휴가 시행으로 운영비 절감에 사력을 다했다. 또한 시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해 운영자금으로 쓰는 등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생협이 운영 중인 글캠 후생관 매장 입구

그러나 글캠 식당 운영에 대한 생협과 우리학교 간 입장 차이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생협의 재정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캠의 후생 파트는 우리학교 소속 직할 기구로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글캠의 생협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식당 적립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1년, 글캠 구내식당의 운영안정을 위해 학교와 생협에서 식당 적립금을 각각 3억, 2억 원씩 부담해 총 5억 원을 모았다. 이 적립금은 현재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생협은 식당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당시 모아둔 적립금을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생협이 별도 법인이란 이유로 적립금 지원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글캠은 넓은 부지에 많은 수의 식당과 매점이 운영되고 있어 설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비 부담이 크다. 방학 기간 재학생의 이탈은 캠퍼스 내 공동화를 불러오고 복지 시설 운영환경 열악으로 글캠 복지 서비스 운영

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생협은 △국제사회 교육원 식당 운영 중단△식당 운영 방식 변경 및 운영 시간 조정△우편취급국 운영변경 등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합의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복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어려워진 만큼 생협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생협, 상생을 위한 과정과 운영 중단이란 파국 사이에서

주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글캠 특성상 생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은 “생협의 재정난을 인지하고 있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교와 생협 간 이해관계 충돌이므로 학생회의 직접적 개입은 어려우나 학생회 운영비 일부를 차감해 생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석중 글캠 총괄지원팀장(이하 김 팀장) 역시 생협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협 유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글캠 생협은 전국 35개의 생협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구로서 △교수△직원△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김 팀장은 “생협은 지금까지 교내 구성원의 조화로 윤치며로 조직을 이끌어온 만큼 앞으로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바란다”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생협은 비영리 조직인 만큼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시협기간 야식 지원△장학금 지급△학내 복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학생지원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 국장은 글캠과 생협의 지난 30여 년 간의 동행을 언급하며 “학교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결 잘 알지만 생협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하는 최종 결정자 역시 학교의 몫이다”며 학내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10. 5(월)~10. 12(월)	10.31(토) 10:00	11. 12(목) 14:00	11. 16(월)~11. 20(금)
일반전형	2020. 11. 9(월)~ 11. 13(금)	12. 5(토) 10:00	12. 17(목) 14:00	12. 21(월)~12. 28(월)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분과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s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수업 방식 전환, 소통의 '스위치(Switch)' 를 켜야할 때

이번 해 9월 29일, 우리학교 양캠퍼스 교무처(이하 양캠퍼스 교무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Switch 1 On' (이하 스위치 온) 시행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퍼스 총학)는 학생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 '새벽으로부터'(이하 설

캠 총학)는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이하 글캠 총학) 또한 글캠에서 설캠까지 행진하며 상황을 증계했다. '스위치 온' 제도에 대한 우리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보자.

◆ 수업 방식을 두고 벌어진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

지난 9월 29일, 양캠퍼스 교무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학기 7주차부터 스위치 온 방식이 적용됨을 공지했다. 스위치 온이란 수강생 13명 이상 50명 이하 강의 중 학기 초 고지된 강의에 한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강의 수강생은 학년 끝자리 숫자 홀짝에 따라 격주로 등교하게 된다. △수강생 12명 이하 전공 강의△수강생 20명 이하 회화 강의△수강생 30명 이하 실습·실습 강의는 전면 대면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강생 수 50명 이상 강의는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이후 양캠퍼스 교무처는 공지를 수정해 이번 학기 7·8주 차를 스위치 온 자율운영기간으로 삼고, 9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양캠퍼스 총학은 △공지사항 불이행△논의 과정에서의 총학 배제△동시 송출 장비의 미비△시행 목적의 불순 등을 이유로 스위치 온에 반대했다. 또한 "수업 방식 문제는 학생 학습권과 직결돼있는 만큼 총학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를 담은 성명문을 각각 지난달 3일과 10일에 발표했다.

지난 8월 3일, 우리학교 교무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주간 국내지역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25명 이상 50명 미만일 때 또는 총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일 때' 스위치 온을 시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2주간 평균 확진자가 8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의 스위치 온 시작을 지적했다. 이 결정이 학교 측 기존 공지에 어긋난단 것이다. 지난달 12일, 글캠 총학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카메라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등의 송출 장비 미비를 확인했으며 디지털서비스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5일, 설캠 총학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이틀간 총장실 앞 밤샘 대기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자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설캠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글캠 총학은 수업 방식 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우리학교 글캠에서 설캠까지 약 44km의 거리를 행진했다. 이 과정 중 일부는 SNS를 통해 공유됐다. 하루 뒤인 지난달 13일, 설캠에 도착한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과 함께 '스위치 온 공동 결의 연설'을 진행했다.

◆ 학교 측의 입장

지난달 26일, 김 총장은 전체 재학생에게 이메일 서신을 보냈다. 김 총장은 서신을 통해 "양캠퍼스 총학의 지적을 수용해 송출 장비를 점검하고 교수진에게 수업 진행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스위치 온 시행 경험이 교육방식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 견해를 밝혔다.

스위치 온은 이번 해 6월 중순부터 학교 집행부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수업 방식이다. 나민구 설캠 교무처장(이하 나 처장)에 따르면 교무위원회는 △출석이 여의치 않은 학생의 수업권△학생 안전△학업성취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탄력적 병행을 결정했다. 더불어 학교 본부가 기존 공지사항을 불이행했던 총학 측 지적은 공지내용 해석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설명했다. 나 처장은 "기존 공지에서도 총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일 경우 스위치 온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양캠퍼스 총학의 의견을 수용해 교수·학생이 시스템에 적

응할 수 있는 2주간의 자율운영기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용애 글캠 교무처장(이하 김 처장)은 매끄러운 수업진행을 위해 스위치 온 수업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 교수진에게 배포했다. 또한 수업 도우미를 선발·배치해 수업 중 발생한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처장은 "학교 본부에서도 긴 시간 철저히 대비해왔으므로 학생들이 지레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캠 교무처장은 모두 동시 송출 시스템을 재차 점검해 일부 강의실의 연결 문제나 음향울림 현상 등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김 총장은 설캠 총학의 노숙농성 캠프를 찾았다. 제성훈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이하 제 처장)은 김 총장이 캠프에 방문해 학사 관리에 있어 학생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양캠 총학의 문제제기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충

적인 시행과 구성원 건강 악화로 인해 노숙농성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학교 집행부는 학생 의견을 참고용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학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나 총장의 서신을 포함한 학교의 대처는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스위치 온 자율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여러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학교 인프라로 동시 송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의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투쟁·총장선출권 문제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며 학교 집행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쟁할 의지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글캠의 위치를 언급하며 앞서 자율운영기간으로 주어진 2주가 학생이 거처를 정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글캠 총학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스위치 온 재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학생이 스위치 온 시행에 반대한다. 박 회장은 "학교의 고질적인 '총학 패싱' 문제로 인해 중요한 논의조차 뒤늦게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론했다. 이어 앞으로 설캠 총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아가야 할 방향

김나연(사회·미디어 19) 씨는 스위치 온에 의한 강의 질 저하나 통학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장서영(동유럽·세크어 20) 씨는 "양캠퍼스 총학의 고군분투에 마음이 아팠다"며 "학교가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설캠의 A 교수는 스위치 온 방식의 수업을 처음 진행한 후 학생과의 토론 과정에서 마이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론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결국 학생과 교수가 서로 양보하며 익숙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했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길어지며 모두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취재에 응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이런 갈등의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지목했다. 학교와 학생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건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할 때다.



▲설캠 총학회장과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노숙농성 해단식을 진행하는 모습

점을 제시해야 하는 학교의 입장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 처장에 따르면 학교 집행부는 수업방식 변경을 최소화해 학생 혼란을 막기로 합의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업방식 변경이 있더라도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의 학교 집행부 회의 참여에 대해 내규 상 회의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총장이 총학생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총장과 갑작스러운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어려운 시간 인만큼 서로 날을 세우기보다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총학의 스위치 온 반대 투쟁

지난달 27일, 설캠 총학의 노숙농성 해단식에서 총학회장과 각 단과대학 대표자는 학교 집행부 규탄 연설을 진행했다. 해당 연설은 학생 대표자 의견을 듣지 않는 학교 집행부 태도를 지적하며 후생 적자를 메꾸기 위해 스위치 온이 시행됐단 주장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스위치 온 본적

글로벌캠퍼스 온라인 행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개교 40주년 기념 언택트 행사인 ‘앙코르’와 제30회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진행됐다. 세민전은 3일간 총 12개의 학회가 무대를 선보였다. 앙코르는 △흙스 커밍데이(HUFS-Coming Day)△외대인과의 대화△페

이스 오프(Face-Off):외대를 노래하다로 구성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된 우리학교 글캠의 행사 진행 과정과 반응을 알아보자.

◆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 세계민속문화축전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글캠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세민전이 열렸다. 이번 해 30회를 맞이한 세민전은 우리학교 특성을 살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다. 첫 날엔 준비과정과 각 학회의 소개가 담긴 ‘스페셜 프로모션’ 공연을 진행했고, 둘째 날엔 온·오프라인 동시에 분공연이 시작됐다. 마지막 날엔 세민전 30주년 특별 이벤트로 △경품 추첨△사연 추첨 후 상품 증정△학회별 응원전을 마련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민속문화축전’에서 실시간 영상을 송출했다. 오프라인 방청객은 전 좌석 거리두기를 지켜 총 89명이 참석했다. 참가팀은 △골데르스나빌레라△라도스 피드로스 호베네스△산다르스세를라르스△오니로뵤아△탄첸△템피타△트임보스플라멩코로 총 12개의 학회다.

‘탄첸’의 학회장 손예림(통번역·독일어 19) 씨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축제라 뜻깊게 생각해 참여하게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진행 과정 속에서도 무대를 만들었던 것이 뿌듯함을 전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해 교내 학우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했다. ‘나빌레라’의 학회장 진유라(국제지역·한국 18) 씨는 세민전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 찬 행사며 오래 계속되면 좋겠다



▲독일어통번역학과 학회 탄첸

음을 전했다. 세민전을 관람한 박수빈(통번역·태국어 18) 씨는 해가 지날 때마다 무대 구성이나 준비가 더 완벽해지는 것 같으며 다음 해는 어떤 구성

으로 공연을 진행할지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세민전에 대해 놓친 부분을 여러 번 돌려볼 수 있고, 춤뿐만 아니라 학우의 몰입하는 표정까지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무대의 전체적인 모습만 볼 수 있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세민전의 이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세민전도 라이브방송이 있었지만 화면과 무대의 거리가 멀고 화질이 좋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이번 해 세민전은 화면과 무대의 거리도 적절했고 높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했다

평가다. 윤소영(동유럽·체코어 18) 세민전 준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각국의 문화와 민속을 담고 있는 콘텐츠로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길 바라며 준비한 공연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 세민전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누구나 볼

수 있었다”며 “세민전 참가자의 공연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달돼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학과 학회 나빌레라

◆ 글로벌 캠퍼스 개교 40주년 기념 언택트 행사, 앙코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글캠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이하 글캠 총학)이 준비한 우리학교 글캠 40주년 기념 언택트 행사 ‘앙코르’가 진행됐다. 행사 이름엔 다시 보고 싶은 공연에 앙코르를 의지듯 다시 보고 싶은 축제를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다. 본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일정 수의 관객만 유지해 진행한 반 오프라인 행사다. 27일엔 우리학교 동문 조우종 아나운서와 최현우 미술사를 직접 초청해 강연을 듣는 ‘흙스 커밍 데이(HUFS - Coming Day)’가 있었다. 28일엔 ‘외대인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는 정기총회를 대신한 자리로 글캠 총학과 학생 간 소통의 장으로 준비됐다. 29일엔 노래 경연 프로그램 ‘페이스 오프(Face-Off):외대를 노래하다’가 진행됐다. 이는 참가자의 정체를 숨긴 채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신형(영상·국공 17) 씨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기대가 컸다”며 “정기총회를 대신한 행사인만큼 중요한 안건이 오가는 외대인과의 대화를 집에서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리와 초대가수의 공연으로 구성됐던 축제가 아니라 학생과 소통하는 느낌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의 이점도 있었다. 유성지(중국·중외통 20) 씨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이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으면 볼 수 없었을 글캠 축제를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축제의 편리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앙코르 '외대인과의 대화'

한편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은 앙코르 이전까지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을 토로했다.

◆ 대학교 온라인 축제 현황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이번 달 2일부터 6일까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축제 ‘퀸쿠아트리아 플러스’(이하 퀸쿠플)를 진행하고 있다. 퀸쿠플은 기존 오프라인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한다. △기포사장의 요리교실△웃음꽃 ‘FLA’ △이-스포츠(E-Sports) 대회 등의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의 경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134주년 대동제 이토록’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화여대 총학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들이 제작한 물품을 판매했다. 또한 미리 녹화한 동아리 공연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송출했다. 이외에도 △각종 온라인 게임△코로나 집콕 챌린지△퀴즈쇼 등 참여형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희대학교도 9월부터 학생들을 주축으로 △가요제△E-Sports 대회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비대면 축제를 기획했다.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모습

이번 해 대학 축제엔 유명 초대가수의 공연과 버스 운영이 주를 이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재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학 축제 문화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18(금) ~ 10.05(월)	2020.10.30(금)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5:00	2020.12.1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 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문화엔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전화어플리케이션 www.jinh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프라하,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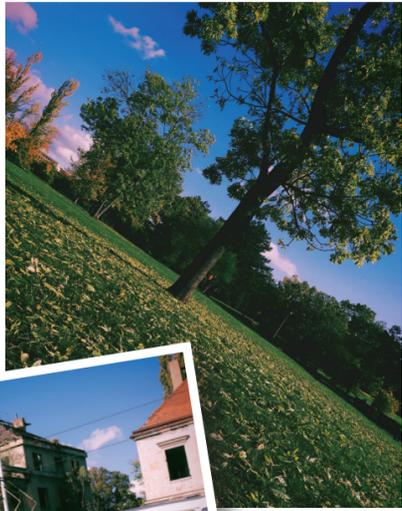
우리학교에 입학하며 목표했던 바는 교환학생이었다. 이번 해 초부터 준비한 7+1 프로그램으로 9월 초, 프라하에 오게 됐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다. 특히 “물보다 맥주가 싸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값싼 맥주가 널려 있다. 또한 현재 머물고 있는 학교인 'AAU(Anglo American University)'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인적으로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였던 서울에서의 생활△무게감 있는 우울과 방향△미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비자 준비는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여파로 함께 오기로 한 다른 학생들이 교환학생 포기를 선언했다. 나 또한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포기할 용기가 없어 이곳에 왔다. 초반엔 외로움이 밀려왔다. 영어를 잘 못하는 탓에 주눅 들기도 했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다. 그러나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중세시대 건축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프라하 시가지의 건물들은 매일 봐도 무더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건축물은 예술의 정수이며 동시에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완벽하다.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한 군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꿈만 같다. 비록 체코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돼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웬지 모르게 여유롭고 평화롭다.



매일 아침 초록으로 뒤덮인 햇살 짙은 공원에서 운동하고, 룸메이트와 함께 요리하거나 포장해온 음식을 먹는다. 한국어 과외를 하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산책하고 사진 찍고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데 쏟는다. 일과에서 느낄 수 있듯 이곳 문화는 한마디로 느긋함이다.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은 여유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아쉬운 점이려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코로나19다. 심각해져 가는 바이러스의 여파로 거의 모든 곳이 문을 걸어 잠갔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다. 그중 미술관에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 좋아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마음껏 감상하지 못해 안타깝다. 두 번째 영어 실력이다. 이곳에서 영어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음이 놀라웠다. 그렇지만 때때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던 것을 느낄 때 답답하고 미안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을 탓할 수밖에 없었고 학구열이 불타올랐다. 누군가와 더 잘 이야기하고 싶

단 이유로 열심히 공부해야했던 다짐이 서 놀랍고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언제 돌아갈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여행자△방안△학생으로서의 이곳 생활이 더욱 값지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고민을 여기서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완벽한 도피처는 없던 것도 알게 됐다. 마음속의 여유를 얼마만큼 가져가 남겨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래알만큼 가져가더라도 모래시계처럼 쓰고 싶다.

글 · 사진 안유정(사회 · 미디어 18)

읽어서 세계속으로

폴란드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정기를 끌어라>

- 연대의 힘은 탐욕의 힘보다 강하다 -



폴란드 작가 ‘올가 토크르츠크’의 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정기를 끌어라’는 여타 범죄 스릴러 장르와 결이 다르다. 주인공 주위에서 기괴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은 비슷하나, 소설 속 용의자는 사슴과 여우 같은 동물이다. 소설은 동물 용의자를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다. 동물이 인간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태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는 △동물권 보호△생태주의△채식주의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온 작가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흥미진진한 범죄 스릴러 소설을 상상한 독자는 기대와 사뭇 다른 내용을 맞닥뜨릴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묘사보다 △자연의 모습△점성학△주인공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내용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설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제목을 비롯해 각 장 도입부에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이하 블레이크)의 시가 인용됐다.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블레이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했다. 또한 자연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시도했던 점에서 생태주의 예술가로 불린다. 인간의 자연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작가가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소설의 주인공인 노인 ‘두세이코’ 역시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히 살아간 블레이크의 노년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소설 속 두세이코가 강조하는 점성학은 작품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점성학을 통해 본 세상은 모든 인과관계가 하늘의 법칙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샤냥 달력’을 만들어 목적 없는 샤냥을 정당화하고, 경찰은 이를 용인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모습이다. 두세이코는 점성학으로 이를 해석하며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을 알리고자 한다. 그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며 우린 자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초 강연에서 “△육식△자연 비존중△이기주의△책임 의식 부재 등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파괴했다”며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자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설의 파격적인 결말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두세이코가 자신이 담고 있던 존재인 동물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나아가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작가의 신념처럼, 이 책을 읽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보길 바란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Global HUFs' tory ④

세계의 태교(胎敎)를 쓰다 - 이사주당 묘



▲이사주당 묘소



▲용인 태교의 숲 입구 -글로벌캠퍼스 남쪽 뒷산



▲글로벌캠퍼스 올레길 코스 -이사주당, 태교의 숲



▲이사주당 표지판

(胎敎新記)를 남긴 조선 시대 여성학자다. 남자만이 유교적 도덕을 갖춘 군자의 삶을 살 수 있던 이른바 유교적 남녀관이 팽배했던 조선 시대에 당당히 여성으로서 군자의 삶을 살았다. 또한 여성들이 학문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 지식인으로서 고군분투했다.

으며 둘 사이는 단순 부부 사이를 넘어 학문적 동반자로서 평생지기의 모습을 보였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태교 교육지침서다. 이 책을 쓸 무렵 사주당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다. 사주당은 책을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막내딸이 갖고 있던 상

자 속에서 다시 발견했다. 책을 그냥 없앨 수 없어 자기 생각을 덧붙여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독자들을 위해 다시 재편집된 것은 1801년 유희에 의해서였으며 어머니인 사주당의 글을 10편으로 나누어 주를 달고 우리말로 해석했다.

사주당은 ‘햇 속 10달이 출생 후 10년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태교를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4명의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른 경험과 지혜를 담아냈다. 이런 실천을 통해 태교가 주는 이로운 점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다. 근대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는 유전자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선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보다 태교가 훨씬 나은 것이라며 태교신기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는 20세기 초에 많이 알려지게 됐으며 최근 용인시의 ‘태교 도시’ 조성 정책으로 관련 연구와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1980년에 만들어진 우리학교의 ‘용인캠퍼스 마스터 플랜 에도 나타나 있다. 이는 이사주당의 묘소가 당시 글캠 설립 예정지의 뒷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터 플랜 속 도면엔 △교육△도리△인성△지혜 등의 의미를 담아 이사주당을 캠퍼스의 상징물 중 하나로 삼을 계획도 있었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래로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줄어드는 학령인구, 대학가에 닥쳐올 위기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모집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접수 인원이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며 대학의 입학 정원 수보다 수험생의 숫자가 더 적어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

리학교를 포함한 각 대학은 수험생 수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줄어든 학령인구 현황△우리학교의 상황△타 대학의 대처△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학령인구 감소 현황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래 이번 해 역대 최저치의 응시생 수를 기록했다. 9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 수능 지원자 수는 49만 3433만 명으로 지난해 수능 지원자보다 5만 명가량 감소했다. 이는 갑작스런 현상이 아니다. 계속되는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학령인구 수는 자연스레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학령인구의 감소 인원은 200만 명에 육박한다.

최근 대학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했다. 이번 해 처음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이 전체 수험생의 수보다 적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입학 정원 미달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해 7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엔 △경기△서울△인천 외 지역의 지방대학 220곳 중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학교가 85곳으로 예상된다. 계속된 입학생 미달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 운영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폐교 수순을 밟은 대학은 총 17곳으로 대부분 학교 운영의 부정비리가 주된 이유였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운영상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며 폐교의 주된 원인일 것이다"고 예측했다.

◆우리학교의 상황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는 비단 지방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해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 지원자와 전체 원서접수 횟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지원 평균 경쟁률은 16.37 대 1로, 지난해 17.83 대 1에 비해 하락했다.

수험생의 선호가 높아 입학 정원 미달을 우려하지 않던 대학도 실질 경쟁률 하락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19.2 대 1이었다. 반면 이번 해 설캠 수시모집 경쟁률은 그보다 0.62 하락한 18.58 대 1이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수시모집 현황 또한 지난해 대비 0.88 하락한 7.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직 수치상 하락폭은 미미하지만 우리학교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었다.

현 상황에서 우리학교는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우리학교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신설될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은

입학처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일부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충남대학교는 다음 해 입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의 전체 등록금을 면제하고, 매 학기 750만 원에 달하는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호남대학교는 이번 해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한 신입생에게 아이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입학 정원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정자 서울지역 대학은 정원 외 모집인원을 늘려 입학 정원을 확대해왔다. 또한 지난 8월,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해부터 신입생 총원율과 같은 일정 기준을 두고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엔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던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실시 중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시장논리가 강화된 정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몰락을 가속화할 뿐인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학부중심대학 형태를 선례로 삼아 작지만 강한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어대학으로서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부각시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을 조언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인구 절벽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학가에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학 교육의 질 상승과 대학별 특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6~21세) 782만 1천명 '20, KOSI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학령인구 수 변화 (출처: 통계청)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선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 목적을 가진다. 우리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학문을 융합시킨 융인대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우리학교 입학처는 입학 홍보대사와 멘토 임명 등을 포함해 전략적 시도를 하고 있다. 양재완 우리학교 입학처장은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외부적 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먼저 대응하고

폰을 지급한다. 그러나 물량 공세를 통한 신입생 유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우리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 전공 교수(이하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학은 △시민△인문△직업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 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학이 특정 연령과 계층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기관으로 재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21(월) ~ 10.05(월)	2020.11.02(월)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29(목) 15:00	2020.12.1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무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 (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수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 (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 (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 (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 (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스널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 FAX: 02-217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자기결정권 유효기간 14주, 낙태죄 개정안 논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7일, 정부는 후속 조치로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임신중지 부분적 허용이다. 그러나 14주 이내란 기간 제한으로 반발이 거세다. △낙태죄 개정안의 내용△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낙태죄 개정안으로 불거진 갈등

기존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이를 도운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낙태죄 관련법 조항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 조항을 신설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 여성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 임신 24주 이내엔 △근친 간 임신△성범죄로 인한 임신△임산부나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선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러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전화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누워 항의 시위를 열었다. 또한 지난달 12일, 여성의원 11명이 모여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개정안,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

임신중지 수술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시행돼왔다. 2018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5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임신중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계는 출산율과 임신중단률이 거의 비슷하다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불법임에도 임신중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 2018년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며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 논의에 여성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복지부△여성가족부가 모인 낙태죄 개정안 관련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묵살됐다. 여성단체의 국무조정실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한 낙태죄 개정안에서 여전히 처벌 대상은 여성과 의사에 한정된다. 임신에 필요한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적 처벌은 남성이 임신중지를 시도한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를 낙태죄로 고발하고 수술한 의사에게 6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걸림돌 많은 낙태죄 개정안 실행과정

낙태죄 개정안은 실행과정에 걸림돌이 많다. 그중 하나는 부족한 의료인력이다. 낙태죄 개정안 내 임신중지는 14주 이내 의사 집도하에 실시된 수술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임신중지는 지역별 의료인력 격차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내 산부인과는 100곳 이상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영양군과 같은 수도권 외 지방엔 산부인과가 한 곳이거나 아예 없다. 특히 이번 해 1월, △모체태아의학회△산부인과사회△산부인과학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주체를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1년간 서울 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의 산부인과 총원율은 83%로 정원 미달이다. 결과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임신중지 기술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을 위한 진료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임신중지를 위한 정식 훈련도 불충분하던 점을 고려하면 빠른 의료인력 양성은 더욱 어렵다.



▲지난달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모습 (출처: 여성신문)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선 종교나 가치관 등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한다. 거부한 경우 다른 기관에 진료를 안내하지 않는 등의 처우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 선택권과 더불어 다른 기술 기관으로 안내할 선택권 역시 요구하고 있다. 즉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취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안내할 의무엔 등 돌리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의 조제권을 두고 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약물 의사 직접 조제 원칙’을 주장했다. 약사법 제23조 4항의 의약품 예외 약품 지정 규정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즉 의사단

체는 임신중지 약물이 이에 포함된다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을 강조하며 “합당한 명분 없이 임신중지 약물만 예외로 의사가 제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중지 약물 중 유명한 ‘미프진’ 도입엔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약사법△형법 개정 입법이 예고됐기에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선불리 미프진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식약처에 제공해야 하는 2가지 임상시험의 기간이 최소 2년이 걸리고, 승인을 위한 자료 검토가 약 1년 정도 걸린단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에서 보이콧을 당할 수 있단 위험도 있다. 이동근 약사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약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받는 것처럼 미프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엔 임상시험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낙태죄 개정안이 입법돼도 각종 갈등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이전의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안이다. △대법원△법무부△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낙태죄 기소는 연평균 9.4건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임신중지가 약 5만 건 이뤄졌고, 그해 합법적 사유의 임신중지가 약 4천 건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적다. 불법 임신중지 수술 의사의 한 달 자격 정지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법안이지만 그 존재로 인해 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에 사문화된 낙태죄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죄를 되살리는 것은 더 많은 여성을 불법 수술로 내모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낙태죄가 두려워 임신중지를 하지 않는 여성은 없고 불법화된 임신중절 수술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다”며 낙태죄 존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경우 1988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사라졌다. 현재 캐나다 국적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면 정부는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에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동해야 한다면,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에 임신중지가 남용될 것이라 우려가 있었지만 2018년 캐나다 임신중지율은 5~44세 사이 인구 1천 명 기준 11.7%이다. 우리나라의 15%보다 적은 수준이다. 낙태죄 존재가 임신중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례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니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할 당시, 그 이유로 “낙태죄가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사문화된 법안의 부활이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진보적 시각이 필요할 때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 간: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 제: 댄스 동호인들 100여 명이 회원인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의 행위 중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 ①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최근 개봉 영화 파일을 올렸다.
 - ②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려받은 음원 파일을 올려서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웹툰 합법 유통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된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웹툰 합법 유통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두었다.
 - ④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다음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파일을 올렸다.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 (<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태국 시위,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해 7월, 태국에서 학생단체와 반정부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시작됐다. 약 1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 강력 진압하며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환승 우리학교 태국어통번역학과 교수를 만나 태국 시위의 원인과 전망을 알아봤다.

정환승 우리학교 태국어통번역학과 교수

Q1. 태국 반정부 시위가 3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는 빠라웃 쩐오차 총리(이하 빠라웃 총리)의 실정과 억압 정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연임하며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민간인 사람과 반정부 인사 탄압도 시행했습니다.

또한 현재 태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겁니다. 이번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전망되고 8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이런 이유가 더해져 젊은 계층은 더욱 빠라웃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1-1. 빠라웃 총리는 2016년 개헌을 통해 군부 통치를 현실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개헌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2014년 5월 빠라웃 총리가 이른바 '소프트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때,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하 푸미폰 국왕)의 유희가 있었습니다. 직전 총리인 잉락 친나왓 총리(이하 잉락 총리)는 당시 탁싨 친나왓 전 총리(이하 탁싨 총리)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의 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잉락 총리가 권력을 남용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바로 실각하게 됐죠.

2016년 빠라웃 정권은 군부의 정치개입을 허용한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또한 빠라웃 정권은 새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120명의 반대파 인사를 체포했습니다.

국민들은 잉락 총리와 탁싨 총리를 거치며 의회 독재와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꼈어요. 잉락 총리와 탁싨 총리 정권 인사들을 몰아내고자 찬성표를 던졌죠. 결국 61.35%의 찬성으로 2016년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세력을 몰아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국민들은 군부의 정치개입 허용 가능성을 등한시했습니다.

Q1-2. 지난 2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야당 '퓨쳐포워드당'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18년 3월, 신인 정치인 타나뎨 쯁롱랴앙끼(이하 타나뎨 의원)는 퓨쳐포워드당을 창당했습니다. 퓨쳐포워드당은 지난해 3월 총선에서 500석 가운데 81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등장했어요. 창당 당시 타나뎨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191만 바트(약 72억 5천만원)를 조달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서 이를 개인 후원금으로 여겨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국 선거법상 개인 후원금은 1인당 10만 바트(약 380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퓨쳐포워드당은 선거자금을 적법 절차에 따라 대출했으며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태국 선거법엔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요. 이를 빠라웃 총리가 악용해 퓨쳐포워드당을 강제 해산시킨 셈이죠.

사실 이전에도 사법부에 의한 총선 무효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실과 군부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태국을 이끌어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법부가 왕실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Q2. 2006년 9월 19일, 탁싨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이래 빈번한 쿠데타가 이뤄졌습니다. 태국에서 유독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국은 1932년 '입헌혁명'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태국의 민주정권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우 군부가 이를 명분 삼아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를 기반으로 한 군부는 국왕의 유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푸미폰 국왕은 70년 통치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며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군부의 쿠데타를 유희하면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중재자 역할을 한 푸미폰 국왕 덕에 태국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국왕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날 수 있던 원인이라 분석도 가능합니다.

Q3. 시위대는 왕실 및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시위대가 초기에 요구한 것은 △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 △의회 해산 △총선 실시 △헌법 개정이었습니. 그러나 군부정권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엔 △군주제 개혁 △헌법 개정 △빠라웃 총리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태국 왕실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 금기였습니. 그런데 이번에 군주제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Q3-1. 시위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는 왕실 모독죄 폐지입니다. 왕실모독죄는 무엇이며 시위대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국은 헌법 6조와 형법 112조를 통해 왕실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형법 112조에 따르면 왕실 모독 시 최대 15년까지 형벌에 처해질 수 있어요. 2016년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고 왓차라롱껀 국왕이 즉위했는데, 그는 젊어서부터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며 군부 정권 배후에 있는 부패한 왕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국왕의 쿠데타 승인과 정치개입 금지 △왕실 자산에 대한 감독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4. 시위대는 영화 '헝거게임'에 등장했던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 손가락 경례는 △우애 △자유 △평등을 상징합니다. 순수와 열정을 가진 젊은 세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이죠. 태국의 기성세대는 온정주의적 국왕의 체제를 바탕으로 △군부 △국왕 △민주 세력 간 균형을 맞추며 형성된 태국식 민주주의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왕과 군부의 결합에 비롯한 불공정 세상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Q5. 이번 시위엔 학생들이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뤄진 반정부 시위와는 다른 양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는 독재와 반독재 세력의 대립이었던 과거 태국의 정치적 시위와 상당히 다릅니다. 2012년, 태국 음료 회사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음주 사고를 내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 가해자는 음주와 마약 복용 혐의가 있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죠. 이후 그는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고 지난 7월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들끓었어요.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재조사해 보니 △검사 △정부 고위 관료 △변호사 등이 사건을 조작했다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건에 그동안 억압된 자유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불안한 국민의 심경이 더해져 시위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Q6. 이번 시위에 대해 정부와 왕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시위 지도부와 핵심인사 상당수가 검거됐지만,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SNS 등을 이용해 '우리 모두가 지도부다'란 구호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서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빠라웃 총리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왕실은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주제 개혁에 반발한 일부 시민 집회에 왓차라롱껀 국왕이 나와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

Q6-1. 태국 시위대는 지난달 24일까지 총리 퇴진을 요구했지만, 25일 총리는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리 집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빠라웃 총리는 과거보다 지지 폭이 현저히 줄었어요. 왕실에 대한 충성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국왕의 지지나 지원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공권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기에도 부담이 너무 큼니다. 시위가 성공한다면 의회 해산을 통해 총선을 실시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재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빠라웃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Q7. 이번 시위는 태국 사회 내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세대 주도 와 '군주제 개혁 주장'입니다. 군주 개혁에 대해선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히 엇갈려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서거한 푸미폰 국왕은 온정·법왕 주의적 국왕으로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태국의 기성세대는 이런 성군 체제에서 살아온 것에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젊은 세대 생각은 달라요. 그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온정주의적 국왕의 통치 아래 살아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군주는 푸미폰 국왕과 같은 어진 군주가 아니죠. 그래서 군주제의 변화를 외치는 겁니다.

앞으로 태국 사회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태국의 기성세대가 자신의 추억 속에 젊은 세대의 미래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 9. 21(월) ~ 09.25(금)	2020.11. 2(월) ~ 11.16(금)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2020.11.2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6:00 예정	2020.12.1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6(금) 예정	2020.12.14(월) ~ 1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과명	모집 전공		
교육학 석사 (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상당심리 수학교육 역신미래교육 독서논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역사교육 컴퓨터교육 다문화교육 창의융합인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중국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어린언어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19)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입구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포장 및 입학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고] 죽음의 흔적으로 삶을 공감하다

그의 일은 누군가 홀로 죽을 때 시작된다. 그는 의뢰이 생을 마감 한 망자의 뒷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부다. 죽음의 흔적으로 망자를 마주하는 그는 자신의 직업을 '식탁 치우기'와 비교한다. 특수 청소부란 직업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는 일 일뿐 특별하고 어렵지 않단 의미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담담히 해내며 죽음 현장을 정리하고 그들을 추모한다. 눈에 보이는 현장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이 가진 의로움까지 처리한다. 망자가 남긴 흔적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죽음이란 벼랑으로 내몰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다고 말한다. 그 예로 한 남성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는 전기 요금을 여러 차례 미납해 공급을 중지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았고, 끝끝내 다가온 전기 공급 중단 예정일에 맞춰 목숨을 끊었다. 과연 이 남성의 선택은 순전히 자신 의지였을까. 작가는 이 도시에서 전기를 끊는 행위가 결국 죽어서 해결하란 무언의 자살 권유일 수 있단 의문을 제기한다. 가난에 허덕이던 그의 삶에 힘겹게 드리우던 한 줄기 빛이 차단된 순간 그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직업을 가진 그는 이 책의 작가이다. 그는 삶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어느날 작가에게 한 여성의 전화가 걸

려온다. 착화탄을 사용해 자살하면 얼마나 괴롭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그는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구조된 여성은 자신의 계획을 망친 작가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다. 그는 여성이 자유로울 권리를 본인이 공권력으로 침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마음 속으로 용서를 구한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던 말이 있다. 모든 죽음엔 진정 차이가 없는가. 어떤 이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가족의 곁에서 생을 마감한 후 양지바른 곳에 묻힌다. 하지만 누군간 아무도 찾아 오지 않는 쓸쓸한 집에서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한다. 가난과 의로움에 의한 압박이 그들을 짓눌러 극단적인 선택을 종용한다. 우리에게 스스로 생을 끝낸 자를 비난할 권리는 없다. 그 누구도 자살로 위장한 '사회의 타살'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의무는 그런 이들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이다. 과연 그들의 모든 죽음에 우리 사회는 뭇뭇할 수 있는가.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보고] TIA, 이곳은 아프리카다

비현실적인 사건도 자주 접하면 진부한 가십거리로 전락한다. △민간인 학살 △미취학 아동 징집 △투표권 제한을 위한 팔 절단 등 아직도 아프리카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원시적 폭력이 비일비재하다. 영화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한 '시에라리온'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솔로몬'은 반군의 무자비한 폭정으로 다이아몬드 채취꾼으로 끌려가고, 가족은 반군의 포로가 된다. 솔로몬의 아들 '티아'는 반군에게 징집돼 연필과 책 대신 총을 쥐게 된다. 티아는 비현실적인 현실 앞에 총을 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정세는 결국 티아를 광란의 전쟁 병기로 만든다. 처음 강제로 살인을 했을 때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졌던 티아는 어느덧 동네 주민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반군의 모습을 답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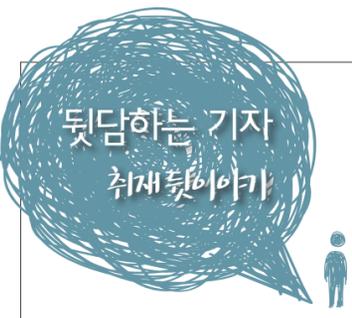
솔로몬은 죽음을 무릅쓰고 티아를 구하기 위해 반군의 소굴로 뛰어들어 아들과 조우한다. 그러나 아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영화의 모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군 대신 국가의 다수 지역을 지배하게 된 반군의 우두머리는 국가의 통치자가 됐던 민중보다 자금을 끌어모아 조국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지옥 같은 현실

을 빠져나가기 위해 비현실적 악마가 된 그의 모습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아야 하는 아프리카의 모순과 비극을 극대화한다.

작품 속 비극의 소년 티아의 영어 철자는 'TIA'다. 'This is Africa'의 약자로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은 영화 주제를 관통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을 법한 일이 일상처럼 상영 시간 내내 스크린을 채운다. '이곳이 아프리카다'란 무미건조한 문장 하나로 영화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 불행의 기원을 찾기에 이미 끊은 오늘날 비극의 대륙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들에게 비난의 돌맹이를 던질 수 있는가? 아프리카의 눈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식민지 시대와 세계대전을 겪으며 타의로 분할된 아프리카는 아직도 근대의 잔재 앞에 가로막혀 비극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중 누구도 인도적으로 아프리카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지하자원을 목적으로 이용하려 들 뿐이다.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상처받은 대륙의 비극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부담과 책임감

지난해 고등학생이던 내게 20살은 무겁게만 느껴졌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며 대학에 대한 희망찬 얘기만 했음에도 난 20살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성인이란 단어의 무게는 무거웠고 새로운 것 앞에서 항상 움츠러드는 내게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경험할 대학은 반갑지 않은 곳이었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온 후 새로 배운 언어와 새로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벽이다. 그래도 조금 느리지만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대학 로망이던 학내 언론 활동도 하게 됐다.

난 내가 기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란 확신을 갖고 학보에 지원하게 됐다. 학보 면접을 볼 때 학내 기자로서 갖게 될 부담과 책임감에 대한 말을 듣고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걱정했다. 무작정 기자가 될 수 있단 환상을 갖고 지원한 학보에 대해 처음으로 불확신이 생긴 순간이었다. 항상 원하는 주제로 기사를 쓸 수 없었고 밤새우며 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다. 학보 기자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외대 학보는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주제를 공부해야 했다. 학보는 내게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 쌓여 있는 신문 또한 자괴감이 들게 했다. 그럼에도 외대학보는 처음으로 책임감을 몸소 깨닫게 해줬다. 저마다의 힘들을 갖고 있을 텐데도 불명예 없이 밤샘 마감에 묵묵히 참여하는 학보 기자들은 그 누구보다 어른으로 보였다.

난 모두가 설레는 수학여행 날 가기 싫어서 혼자 표정이 어두웠던 사람이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내게 학보는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다. 지금도 단체 활동은 여전히 내게 부담이지만 학보는 그 부담을 안고 가게 만든다. 회의 날엔 모두가 저녁까지 한 명의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감 날엔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학보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단체에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됐다.

쉬운 순간이 없던 학보지만 학보는 계속해서 성인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사실 학보 활동을 통해 진정한 성인이 되고 있다고는 못하겠다. 인터뷰를 위한 낮은 사람과의 전화와 지면을 채워야 하는 책임감은 아직도 벽차 성인이 되는 멀었구나란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기자란 직업에 확신이 생겼다고도 못한다. 그래도 학보는 날 성장하게 하기에 남은 기사를 책임감 갖고 열심히 써 보려 한다.



김하늘 기자

1048호 학보를 읽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파란 하늘은 높아지고 나무는 붉고 노랗게 물들고 있다. 날씨는 쌀쌀해져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졌다. 이전보다 빨리 지는 해는 이번 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린다.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은 8개월 넘게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와 그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외대학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는 SWITCH1ON이란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 많은 학생이 다시 모이는 만큼 학교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학생의 불안은 여전하다. 우리학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엔 많은 허점이 있었다. 외대학보는 관련 기사에서 학교 방역 조치의 부족한 점을 찾아냈고 학내 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학생 불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학교의 부족한 점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 학교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뤘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동물을 보호하란 의견과 소음이나 청결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대립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담아냈다. 여기에 동물보호 동아리의 의견도 함께 적어 독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본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다.

김도희 (서양어·네덜란드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지난해 진행된 우리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썸머스쿨'에 대한 학생 수기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한 요즘 같은 시대에 본 수기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현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던 점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썸머스쿨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학생자치와의 상관관계를 짚어주는 기사도 실렸다.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력한다. 하지만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 등 기존의 중요한 학생자치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익명 커뮤니티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려줘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에 관한 기사는 우리에게 밀접한 일이지만 쉽게 잊고 사는 문제에 대해 짚어줘 좋았다. 이번 호를 읽으며 우리학교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더 피할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발견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길 바란다. 현재를 관통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기사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와 편집장에게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1048호 학보를 읽고

코로나19와 가을 사이

정신없는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니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외에도 많은 화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대학보에선 이런 주제를 모 아 다루고 있다.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하됨에 따라 대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내의 방역체계엔 틈이 많다. 학교 측의 방역은 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정도가 전부이며 안내사항을 따르지 않는 학생도 존재한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라도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근처의 길고양이를 두고 학생들 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학생자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법적인 시각 등으로 접근한 점이 인상 깊었다. 길고양이를 보고 연민의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책임감 없는 연민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우리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진정으로 길고양

이를 위한 성숙한 애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에브리타임에 대한 얘기도 다뤘다. 익명 커뮤니티의 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익명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 비방글이나 분란을 조장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에브리타임이지만 실시간 검색어에 '외대는 소통하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익명 커뮤니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교내 구성원 모두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친구는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한 친구가 늘고 있다. 20·30세대의 주식투자가 늘어난 것은 뉴스나 기사로 접해봤지만 이번 호를 읽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 수 있었다. 투자 시 주의할 점 기제가 되어 이번 호를 통해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때보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며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좋은 기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이 건강히 다음 학보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

전종민 (공과·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현대에 필수불가결한 전문가 지준범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장을 만나다.

1970년대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전례 없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며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과 이에 따른 재난 및 재해로 골머리를 앓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밀집도가 높다. 이에 기상 관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기상환경에 대한 관측과 분석이 필수 요구된다. 더 나은 환경에 일조하는 도시기상 전문가, 지준범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환경연구센터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기상 및 환경과 대기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센터의 목표는 극한기상 관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도시지역 기상·환경에 관련된 국가행정기관의 연구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있죠. 더불어 맞춤형 기상·환경정보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현재 △박사 8명△석사 3명△환경학과 학생연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주요 연구 분야에 따라 △기상응용서비스팀 △도시기상모델팀 △대기환경팀 △스마트기상관측팀으로 구성됩니다.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기상정보를 산출하고 응용정보 서비스를 개발해요.

Q2. 여러 학문 중 기상학(Meteorology)과 태양 복사(Solar Radiation)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태양으로부터 방출돼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관측하고 계산하는 분야에 관심 있었어요. 이에 복사모델을 기상수치모델에 적용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기상수치모델을 활용하는 건 미래의 날씨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이예요. 최근엔 도시 규모의 상세한 기상수치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용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분야와 협업하며 맞춤형 기상정보 생산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어요.

Q3.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기상기후응용입니다. 도시기상과 그 기반이 되는 '미기후'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기후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평균 기상 상태입니다. 현재 센터에선 미기후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상 특성에선 큰 규모의 기상·기후 분석이 필요해요. 하지만 도시 규모 또는 건물 단위의 작은 영역에선 미기상·미기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기후적인 상세 분석을 할 땐 △건물매치 및 재질 △도시구조 △주변 식생까지 고려해야 하죠.

Q4. 현재 센터에선 스마트기상관측 연구를 수행해 기후를 관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주요 관측 연구내용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도시 규모 미기상·미기후와 대기질 관측 및 모델 운영 △도시환경 재해 및 재난 대응 △에너지 관리 등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기상·기후 자료를 생산하고 관측합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특정 기간엔 집중관측을 수행하며, 연구·개발을 통해 △도로모델 △도시모델 △미기후모델 등의 검증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5.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 여름,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으로 도심지역에서 '3차원입체기상관측*(이하 BBMEX)'을 진행했습니다. BBMEX의 수행목적은 무엇이며 자료는 어

디에 활용되나요?

센터에선 도시 건물 밀집 구역 내외의 정확한 온도 분포를 규명하고자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관측소 부근에서 도심 내 고해상도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했죠. 수집된 자료는 기존 기상관측소 자료와 비교·분석해 도시 내의 기상 특성을 규명합니다. 지난해 관측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화문 도로변의 기온은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주간엔 2.2℃ 정도 높았고 야간엔 1.5~1.7℃ 더 높았습니다. 폭염이 심할 때 가로수는 기온을 0.8℃ 가량 낮췄고 잔디밭은 인도보다 0.7℃ 가량 더 낮추는 효과가 있었죠. 아직 분석 중인 부분도 있지만 폭염 대비에 필요한 △그늘막 △인공개스칼수차 등의 운영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시 계획 △도시 발달 숲 내의 상세 기상장 산출 △폭염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요.

Q5-1. BBMEX 관측에서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는 직접 개발한 '모바일기상관측카트(MOCA)'를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바일기상관측카트는 보행자 맞춤형 기상정보를 수집하도록 개발됐어요. 보행자의 입장을 고려해 이동형 카트 위에 △노면 온도 △습도 △온도 △풍향·풍속 감지 기상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 인도를 30분마다 순환하며 초단위로 자료를 저장하죠. △시간에 따른 건물에 의한 태양 차단 △ 지표면에서 보행자 얼굴 높이까지의 수직 온도 구조 △ 직접적인 일사량에 따른 온도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현재 센터에선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기상정보응용 서비스 산업을 진행 중인가요?

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아주 낮아요. 대부분 과제를 발주하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결과를 현재까지 △기상청 영향예보 시스템 △국립기상과학원 미기후 분석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도로침수 및 결빙 예측 시스템 △충북연구원 미기후 분석시스템 및 미세먼지 분석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7. 우리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는 한국기상학회에서 도시기상 연구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차세대 도시기상서비스 개발 사업단에서의 '도시 규모 기상 예측 시스템 개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수도권권을 대상으로 서해의 △구름 모수화** △간척지 효과 △복사과정에서 지형효과 △상세 지형 특성 정보를 적용해 500m 해상도의 기상 수치모델을 구축·운영했습니다. 더불어 도로기상 및 도시침수 등과 연계해 응용서비스와 포괄적으로 융합했어요. 센터에선 BBMEX 관측영역에서 3D 카메라 촬영자료를 이용해

도시 건물구조 및 건물 차단율을 계산해 복사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를 모바일관측 및 지상관측과 연계하고 협업해 분석했습니다.

Q8. 이상기후로 도시 위험 기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기상기후응용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분석하고 도시지역 피해 저감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위성 자료와 다양한 관측 및 모델 예측자료를 융합해 진행할 예정이에요. 인공위성은 관측 공백 영역에 대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한국과학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지원 예정입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센터 규모를 확충해 연구자 연구지원과 대학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9. 끝으로 도시기상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시기상은 기상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컴퓨터공학 △도시공학 △통계 등 이공계와 △경제 △사회 △정치 등 인문 사회계의 학문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도시기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연구 동향 및 국가정책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해요. 또한 본인의 전문분야를 깊게 공부한다면 협업을 통해 충분히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고, 도시기상과의 관련성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도시기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원입체기상관측: 발달숲 집중 기상관측실험
**구름 모수화: 구름 입자의 성장 및 강수 발생을 다루는 방법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신청방법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지원수준 본인부담의료비(급여 제외)의 50% 지원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지원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15% 초과 시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진료 및 외래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 등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금액 연간 2,000만원 한도	

*이용·신청, 특성이용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 또는 타 기관 의료비지원금, 민간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